

보도자료

2012년 4월 16일(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김정렬 과장(☎750-2730) jrkim@kcc.go.kr
인터넷정책과 양기성 사무관(☎750-2731) yangkinice@kcc.go.kr

이계철 위원장, 「인터넷기업 CEO 간담회」 개최

- 올해는 우리나라 인터넷이 도입된지 30주년이 되는 해
-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해외로 나가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월 16일(월) 11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인터넷기업 및 유망 인터넷 신생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회장, 김상현 NHN 대표,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주식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서정수 KTH 대표,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 이석우 카카오 대표, 김창환 코튼인터랙티브 대표, 이광민 리앤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계철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서 지금까지 인터넷이 국가 사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시기였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해외로 진출하는 시기가 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구미의 전자통신연구소를 연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을 테스트한 날이 1982년 5월으로 올해 30주년이 됨

또한,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활발히 탄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는 벤처, 중견 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이 격이 없이 모여 창업과 비즈니스 애로 사항 등을 서로 논의한다며, 오늘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업체들이 만났으니 기업들간에 서로의 노하우를 잘 공유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웹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구현하고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웹 표준기술인 HTML5가 보다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5) : 멀티미디어 기능, 게임 및 이미지 편집 등이 웹 자체적으로 구현되는 국제 표준 문서로 국제 표준화 추진 중(2014년 예정)

인터넷 기업협회의 박주만 회장은 대·중·소 기업이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방통위가 인터넷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에 감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활발히 창업한다면 우리나라 인터넷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